

공약사항 추진상황

분야	생활밀착형 복지 중구	특목으로알리기	관리번호	6-10
-----------	--------------------	----------------	-------------	-------------

공약명 (세부사업명)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 교육 실시							
주관부서 ☎ 2644	부 서	일자리경제과	협조부서					
	담 당	경제진흥						
	담당자	손세규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지속사업		사업주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사업 <input type="checkbox"/> 시책사업 <input type="checkbox"/> 국책사업				
기간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기사업 <input type="checkbox"/> 중·장기사업		완료시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기내 <input type="checkbox"/> 임기외				
이 행 도	<input type="checkbox"/> 이행완료 <input type="checkbox"/> 이행후 계속추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상추진 <input type="checkbox"/> 일부추진			진 도 율	30 %			
추진기간 (임기내)	2018년 ~ 2022년		소요예산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비예산	-	-	-	-	

반려동물 소유(所有)자와 미소유(未所有)자 사이 마찰·분쟁 완화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반려견 문화 에티켓 교육 실시하며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짚는 개 훈련 요령을 교육하고자 함

I.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규모
 - 동물등록수 : 연간 약 366두 등록(최근 5년간)
 - 사 업 비 : 비예산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사업내용 : 동물등록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및 동물보호 기본 원칙
 -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을 통한 문제행동의 원인과 개선방법 찾기 등

II.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	연도	계	임 기 중 투 자 계 획					임기이후
			소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비예산	-	-	-	-	-	-
국 비		-	-	-	-	-	-	-
시 비		-	-	-	-	-	-	-
구 비		-	-	-	-	-	-	-
기 타		-	-	-	-	-	-	-

II. 그간의 추진실적

- 반려동물 에티켓,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 전단지 배포 : 1,000매
- 반려동물 보호법 개정 사항 소식지 게재 : 5회
-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주민 홍보
 - 반려동물등록 대행기관(8개소)에서 동물등록시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실시 : 1200두
 - 반려동물 에티켓 준수 캠페인 실시(18회) 및 홍보 현수막 제작·설치(16개)
-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2019.5.20.)

III. 당해분기 추진실적

- 반려동물 에티켓,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 전단지 배포 : 200매
- 반려동물 에티켓 준수사항 소식지 게재 : 1회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9.7월 ~ 8월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901두 등록
-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주민 홍보
 - 반려동물등록 대행기관(8개소)에서 동물등록시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실시 : 1139두
 - 반려동물 에티켓 준수 캠페인 실시(4회) 및 홍보 현수막 제작·설치(4개)

IV.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반려동물 에티켓 주민홍보

V. 보조자료

- 보도자료

대구신문

2019년 07월 08일 월요일 006면 사회

“사람과 동물 공존하는 지역 문화 앞장”

대구 중구청, 동물보호 대책 마련
보호 만료된 동물 입양시 지원금
TNR사업·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대구 중구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 보호 및 복지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7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대구 중구의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사업계획을 세웠다. 해당 사업은 유기·유실 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베틀켓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청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지역 내 5곳의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질병 관리 지원과 함께 1년에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보호 관리가 만료된 동물을 주인이 입양할 경우 1마리당 최대 20만 원까지 입양비를 지원해준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2천8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길고양이 포획 후 중성화 수술을 시킨 뒤 다시 방사하는 TNR 사업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더불어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지원하고 정기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대구 중구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3만8천619가구 중 25.6%에 달하는 9천921가구에서 총 1만3천242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형식의 홍보물로 반려동물 등록제, 중성화 수술 권장, 동물 학대 방지, 반려동물 구입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주민이 지역 동물 병원에서 반려동물을 등록할 경우 반려동물 보호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도 펼친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